

## 유명인과 개신교계 신종교의 관계 의혹 보도 내용 연구

: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이정은

### 〈목차〉

#### I. 서론

#### II. ‘종교의 자유’ 언급한 보도들의 3가지 논조

1. 종교의 자유가 있다
2.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3. 종교의 자유, 넘어섰다 vs 억압말라

#### III. ‘종교의 자유’ 허용 기준의 내용과 3가지 제언

- ‘종교의 자유’의 허용 여부 기준
  1. ‘종교’ 명명의 자유
  2. 종교의 ‘자유’로 인한 문제 지적의 구체성 갖추기
  3. 신종교 내 자체 비판의 ‘책임’적 목소리 필요

#### IV. 결론

#### I. 서론

저는 “유명인과 개신교계 신종교의 관계 의혹 보도 내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의 상당 부분이 명사들로 연결되어 있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에서, 유명인, 즉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개신교계 신종교 신도라거나, 이들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명인들이 개신교계 신종교의 신도라거나 이들 공동체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시지요? 몇몇 사례가 생각나실 텐데, 저는 이번 발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개신교의 이단’ 또는 ‘사이비’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유명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JYP 수장 박진영, SES로 활동했던 유진, 배우 박보검과 친구, 아이돌 DKZ 그룹에서 활동했던 경윤, 배우 강지섭, 이명박 때부터의 역대 대통령들,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사례들, 즉 한때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거나, 여전히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사 검색은, 한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

버 검색창에, 사례 각각의 키워드를 넣어 시행하였고, 그렇게 검색된 모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박진영, 유진이 속칭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디스패치에서 박진영이 ‘구원파’의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그 관련 후속 기사들이 한동안 이어진 바 있습니다.

둘째로, 박보검이 주요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예수중심교회 교인이라는 기사는, 박보검이 주연으로 나와 유명해진 드라마 <응답하라 1998> 종영 이후인 2016년 2월에 잠시 등장했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에 박보검이 자신의 SNS에서 교회의 기도회 행사를 홍보하였는데, 이후 앞선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잠시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배우 진구가 2011년 2월, 자신이 참여한 영화 ‘혈투’ 개봉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몇몇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넷째로, 2023년 3월 초에 JMS 사례를 담고 있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오픈되었는데, 그 직후 배우 강지섭과 DKZ라는 그룹에 있던 아이돌 경윤이 JMS 신도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가 대선 또는 경선과 같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기사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이후, 선거 때마다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중 제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1번 박진영, 4번, 강지섭과 경윤, 5번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는 각각 수천 건 혹은 그 이상 검색되었는데, 반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 II. ‘종교의 자유’ 언급한 보도들의 3가지 논조

그렇게 살펴본 기사들에서, 주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유명인과 개신교계 신종교의 관계 의혹 보도’들이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 보이는 논조를 3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기준에 대한 보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이후, ‘유명인과 개신교계 신종교, 종교의 자유’의 관계 문제를 다루는 기사 내용의 한계 또는 생각해 볼 지점을 3가지로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보도들의 논조는 크게 셋으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경우, 둘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주되게 등장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건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대(對) “기성교회와 특정 정치세력의 말만 듣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1. 종교의 자유가 있다

첫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보도가 강조되는 사례로, 박진영의 속칭 ‘구원파’ 논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직후, 박진영의 아내가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기복침) 유병언의 조카, 즉 유병언 동생의 딸이라는 것을 근거로, 박진영도 기복침의 ‘불법 자금유입’ 관련 문제나 세월호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에 박진영은, 자신의 아내가 유병언의 조카는 맞지만, 종교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유병언이나 그가 이끄는 공동체 측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은 무교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보도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관련 기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2018년 5월 2일에, 디스패치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단독보도합니다. 이 기사에서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속칭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그리고 이들과 관련해 과거 보도되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박진영이 기복침에서 가르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모임에 참석한 이 중에 세월호 참사 당시 재판받고 구속되었던 변기춘 등의 속칭 구원파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디스패치 기사를 베껴 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박진영은 자신이 인도하는 성경공부는 구원파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 공동체와도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다가 확장된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간증문까지 공개하고, 이 모든 내용이 대거 기사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집니다.

박진영에 대한 비난 논조의 기사에 맞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첫 힘을 실어준 인물은 역사학자 전우용이었고, 이어 작곡가 김형석이 박진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김어준이 디스패치의 보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중 김어준에 대한 기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우리 사회가 박진영 개인의 종교관을 왜 알아야 하는가? 디스패치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종교관을 폭로하는가?”라는 식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고, 그의 이런 말들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디스패치가 다시 기사를 내어 ‘박진영은 구원파가 맞다’는 식의 주장을 다시 내세우고, 박진영이 또 이를 재반박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첫 보도 이후 쏟아진, 박진영에 비판적 시선을 보냈던 기사들의 논조와 달리, ‘박진영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진영이 종교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무엇을 믿든 그의 자유이며 이를 폭로

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논조가 주를 이루는 사례들에는 박진영의 경우 외에도, 유진의 구원파 논란, 진구의 안식교 논란, 박보검의 예수중심교회 논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에도, 이에 덧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관련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꾸준히 내보내는데, ‘박진영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의 가르침은 이단적이며, 이단적인 가르침은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인간’인 박진영 또한, 이와 같은 ‘이단 또는 문제적 종교’ 논란에 동참합니다. 그는 2022년에 업로드한 그의 성경 강의 유튜브에서, “박진영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종교가 제일 싫다”는 발언을 하며, 이전의 속칭 ‘구원파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갈라져 나온 생명의말씀선교회 소속 신앙인인 유진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 관련 기사’가 쏟아졌을 때, 자신은 ‘구원파 같은 문제적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 자신이 속한 곳은 가장 올바른 가르침,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신교 언론사인 국민일보에서는 유진이 출석하는 선교회도 ‘구원파’가 맞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배우 진구의 기사에서도, ‘자신이 속한 안식일교가 이단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건전한 공동체이며 이단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게 되어 다행’이라는 논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보검 관련 기사에서도 ‘이단이다, 아니다’ 논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보검은 자신이 출석하는 예수중심교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신의 교회는 이단이나 신천지가 아니다. 그랬으면 빠져나왔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박보검의 출석 교회는 ‘이단이 맞다’는 개신교 측 반박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은지 5년 후인, 2022년 박보검이 ‘개신교 측 정통 교회인 ○○○ 온누리교회’로 교회를 옮긴 것 같다는 기사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단이다, 아니다’ 논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 2.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둘째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MS 신도 의혹 보도 사례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럼에도 이건 아니다’는 식의 논조를 주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를 공개한 이후, 아이돌 경윤과 배우 강지섭이 JMS 신도라는 기사가 차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윤은 ‘부모님이 운영하던 카페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JMS 탈교 및 향후 어떠한 관련도 없게 할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강지섭의 경우, 그가 2012년에 올렸던 글과 2022년 12월 <프리한 닥터M>이라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방에 놓인 예수상 액자 등을 근거로, 그가 JMS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 예수상이 JMS 측에서 사용하는 예수상과 동일하다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예수의 눈이 크고 동그랗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쁘띠 예수상’이라고 불리곤 했다고 합니다. 강지섭은, 자신이 JMS 신도라는 보도에 대해, 과거 JMS 단체에 출석한 것은 맞지만 4-5년 전 탈퇴했으며, 그 실체를 몰랐는데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그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에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JMS는 예외다’는 식의 논조가 강하게 부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강지섭과 경윤이 JMS를 탈퇴 또는 탈교했다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기사 또한 대거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JMS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가능하다’라는 ‘모사’ 교리가 있는데, 강지섭과 경윤이 지금 모사로, 거짓 탈교를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윤은 결국 아이돌 활동을 중단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강지섭의 경우에는, 일본 에도시대에 있었던 ‘후미에’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강지섭은, 자신이 JMS 신도라는 주장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일찍이 탈교했다고 주장하면서, 옷방에 놓여있던 ‘쁘띠 예수상’의 액자를 부수고 그림을 구긴 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탈교 인증’을 합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강지섭이 가장 중요한 예수의 얼굴을 찢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가 위장 탈교한 것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 탈-JMS 운동의 선두에 선 김도형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그가 JMS를 탈퇴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관련 논란이 종결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논조에도, 다른 작은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신도는 피해자다’라는 목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신도 색출 작업과 분위기가 이어지자, 해당 다큐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이 각 종교를 믿기 때문에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잘못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교주와 위인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서, ‘신도들은 종교를 선택했을 뿐이며,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을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사들에서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하지만 그 신도들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동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에서 JMS 2세들에 대한 기사도 등장하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한 2세는 본인을 포함한 JMS 2세들은 피해자이며, 정명석의 범죄로 인해 “월명동에서 친구와 동생과 함께 컸던 추억이 더럽혀진 기분이 들어 슬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JMS를 탈퇴한 2세들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을 기획·방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JMS 2세들은 정명석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종교의 자유, 넘어섰다 vs 억압말라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 대 ‘우리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말라’ 라는 식의 논조가 강하게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유력 정치인 및 대통령의 관계 의혹 보도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2016년 8월 20일자 기사 제목을 보면, “신천지의 정치인 포섭, 여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 의혹’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살펴보면, 흔히 ‘보수 정치 집단’이라 불리는 측과 신천지가 깊은 관련을 지닌다는 주장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 신천지의 관계 의혹에 대한 기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와 신천지가 ‘협력 관계’라는 주장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즉 18대 대선 이전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논란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된 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신천지의 선거 개입 논란은 18대 대선 때부터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이야기로 돌아와, ‘박근혜가 신천지와 협력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광고가 “신천지의 기관지로 알려진 천지일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근거로, ‘문 후보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19대 대선 즈음, 새누리당의 주요 의원들, 대표적으로 **서청원**, **이정현** 의원 등이 신천지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지속해 왔거나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당명이 ‘신천지’를 의미한다는 점이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거론되면서, 새누리당은 곧 신천지당 아니냐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이러한 기사들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특정 정치권과 기성교회가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천지를 사이버로 매도하여 죽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강한 비판의 어조를 드러냅니다.

넷째로, 19대 대선의 예비 후보로 거론되었던 **반기문** 또한, 그가 신천지 유관기관인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의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동안 ‘신천지와의 정치적 유착 관계 보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기문은 이러한 주장을 즉각 부정했고, 당시 신천지 안팎에서 이만희의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김남희** IWPG 대표와 사진을 찍은 것, 그로 인해 신천지와 관계가 있는 인물로 거론되었던 것 모두 ‘지나가던 새 똥에 맞은 기분’을 들게 한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반기문과의 연계는 억지 보도이자 기성교단이 날조한 거짓 주장’이며, 자신들은 반기문과도 IWPG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다섯째,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도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철수가 있던 국민의당 측 인물을 비롯하여 신천지 신도의 증언을 근거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시기

에 대거 국민의당 지역 당원으로 등록하여, 경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안철수는 한동안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신천지의 집단 침투와 같은 종교의 정치 장악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에 대해, 이는 ‘CBS의 술수이자 기독교언론의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20대 대선 때, 신천지가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 보도가 대거 등장합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국민의힘 당원 가입으로 은혜를 갚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신천지 측의 대대적인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쳤고, 경선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리는 기사들 또한 등장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신천지와 윤석열의 유착 관계 주장’의 근거로 윤석열과 이만희의 비슷한 손가락 모양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질세라 이만희의 경우와 유사한 이재명의 손가락 모양 사진을 찾아, 이를 기사화합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천지 측의 선거 개입 방식이나 ‘모략’ 접근 방식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 기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략’은 JMS의 ‘모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반한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지금까지 거론된 ‘신천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모두 “허위 풍문”이며, 자신들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냅니다.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신천지가 종교 활동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겠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종교 자체를 비하, 폄훼, 매도해서는 안되고, 그런 범법 활동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해서는 안된다’는 논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신천지가 지닌 종교의 자유를 억압말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도 이어 등장합니다.

### Ⅲ. ‘종교의 자유’ 허용 기준의 내용과 3가지 제언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 보도들 논조의 특징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사들에서 언급한 ‘종교의 자유’ 허용 여부 기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의 보도 방식에서 생각해 볼 지점을 크게 셋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 - ‘종교의 자유’의 허용 여부 기준

‘유명인과 개신교계 신종교의 관계 의혹 보도’ 기사 중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식의 서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과 관련 기사’와 ‘JMS 관련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천지 관련 기사’와 그 외의 유명인과 신종교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기타 기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들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종교 공동체가 범법 행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정치권과의 유착을 꾀하는 경우, ‘사기’ 포교 및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 인간을 신격화하고 신도들을 세뇌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 허용 여부 기준’은 결국 ‘종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존재하는 종교 공동체는 ‘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뉴스앤조이의 한 기사에서는 이를 간명하게 표현하여, ‘종교의 자유 이유로 종교라고 하기 어려운 이단·사이비 방치해선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 언론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 ‘진짜-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 논란’에 대해, 앞서 정리한 내용들과 비슷한 입장을 내보입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영리목적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신도들의 재산 헌납을 강요’하거나, ‘종교 지도자가 공금을 횡령’하면 모르겠지만, 자신들 공동체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측은, 오히려 기성교회가 이런 사이비적, 문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1. ‘종교’ 명명의 자유

‘유명인과 신종교의 관계 의혹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해, 제가 제언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은, 사회적으로 ‘종교’ 명명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 용어 중 하나가 ‘사이비’입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사이비 종교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이비’는 문제적, 범법적, 반사회적 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자연히 ‘종교 조직 또는 공동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 허용 여부 기준’ 또는 ‘종교의 기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을 온전히 통과하여 ‘종교’의 자격을 무난히 획득할 수 있는 공동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측면 또한 고려하여 ‘사이비 종교란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계 신종교와 관련된 앞으로의 보도들에서, ‘사이비’라는 용어를 폐기할 수 없다면, 이를 종교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나 사건을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이비적’ 또는 ‘문제적’이라는 표현을, 집단 전체가 아닌 특정 행위나 사건을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우선 개개인이 어떤 종교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곤 하는 ‘사이비 종교 연루 의혹 논란’에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종교 공동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적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행정적 개입이 요구되는지 등을 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2. 종교의 ‘자유’로 인한 문제 지적의 구체성 갖추기

둘째로, 종교의 자유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적 상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문제 지적의 구체성을 갖추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분석한 기사들 중 몇몇 기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얼마만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과 실천까지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종교 관련 기사에 나오는 표현들 중 모호하고 동어반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서술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종교의 자유’가 그렇고, ‘신종교가 가정을 파괴하고, 학업 및 직장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라는 주장, ‘신종교와 정치 권력의 결탁 문제’에 대한 비판, ‘종교적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라’는 신종교 측의 주장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 파괴, 이혼 조장, 학업 및 직장 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며,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가? 가정이 파괴되고 학업 및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혼과 학업 및 직장 포기가 개인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인가?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지점을 구체화하고 세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신이다>를 설명하는 기사에 “사이비 종교에 낚일 경우 금전적 손실과 성범죄에 노출돼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서술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든 ‘금전적 손실과 성범죄에 노출돼 인생을 망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한 공동체의 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비 종교는 어떠하다’는 식의 단순화된 서술 보다, 그와 같은 취약성의 정도 차이를 드러내는 서술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 3. 신종교 내 자체 비판의 ‘책임’적 목소리 필요

마지막으로,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종교 내부에서, 자신들 공동체의 행보 중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없는지를 스스로 비판하는 목소리, 그와 같은

책임 있는 목소리가 키워지고 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기사에 언급된 신종교 관련 여러 문제들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문제’, ‘모략 또는 모사로 포교하거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그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여러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일관되게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 및 보도합니다. 그들의 ‘모략 포교 및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신천지 측이 유명 단체를 사칭하여 비밀리에 포교 행위를 시도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정 단체를 사칭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칭을 당한 해당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힘든 행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측 언론 보도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사기 포교 금지’ 요구에 대해,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뒤섞여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일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그들의 ‘모략 행위 방식’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경우, 일본에서 1980년대부터 ‘영강상법’을 통한 전도 및 헌금 권유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즉 과도한 헌금 권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법규 준수 선언을 합니다. 물론 ‘헌금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행위에 대해 단체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와 이를 시정하겠다는 결단이 나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신종교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단체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 책임있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공식적으로 보도되길 기대해 봅니다.

#### IV. 결론